


효천 테마 독서

"사춘기"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나는 설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은재 / 잇츠북

아이들은 자의식이 강해지는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학교, 가족, 친구 등 자신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걸 겪곤 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말이 잔소리로만 들리고, 공부도 내 맘처럼 쉽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쉽게 어긋나버리곤 해요. 주인공 기적이 역시 사춘기가 되면서 여느 아이들처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합니다. 기적이는 설탕처럼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사춘기 대 갱년기> 제성은 / 개암나무

어느 순간부터 루나는 온갖 일에 짜증이 났고, 모든 일을 엄마 탓으로 돌렸어요. 항상 루나에게 헌신적이던 엄마 역시 갑작스럽게 시도 때도 없이 덥다고 하고 성질을 부려요. 루나에게는 사춘기가, 엄마에게는 갱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루나와 엄마는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는데... 과연 루나의 사춘기와 엄마의 갱년기 중 누가 이길까요?



효천 테마 독서

"사춘기"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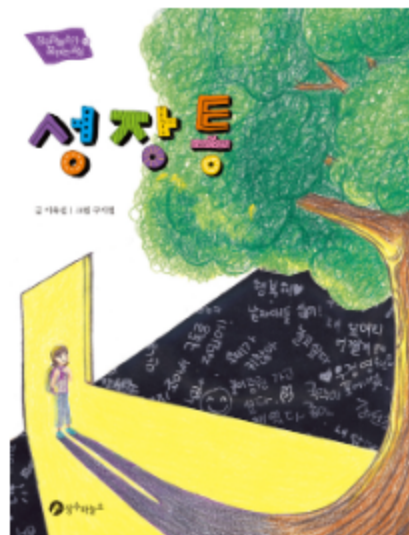


<사춘기 아니라고!> 박산향 / 푸른날개

무슨 말과 행동만 하면 사춘기라고만 해서 경민이는 짜증이 났어요. 동생 지민이가 태어난 이후로 엄마, 아빠가 지민이만 예뻐하고 지민이한테만 관심을 주는 것도 싫었어요. 이럴 때마다 경민이는 엄마랑 단둘이 살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굳게 닫힌 내 마음을 엄마, 아빠가 알아주는 날이 올까요?

<성장통> 이옥선 / 장수하늘소

성혜, 동주, 연주는 늘 붙어 다니는 삼총사로, 별자매라는 이름도 지었어요. 삼총사답게 학원도 같이 다니기로 약속했지만 연주 엄마는 학원이 아닌 공부방으로 연주를 보냈어요. 친구들이 없는 곳에서 공부가 될 리 없는 연주는 잔소리가 점점 듣기 싫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고민이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느껴지기만 한 연주의 성장통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효천 테마 독서

"사춘기"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



<사춘기 가족> 오미경 / 한겨레아이들

재미라는 말은 엄마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같아요. 단오라는 내 이름도 단옷날 태어난 나에게 재미를 위해 지었고, 시골로 이사하는 이유도 재미를 위해서예요. 가족들이 시골로 오고 나서 각자의 이유로 성장통과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인생에서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닌 사춘기를 우리 가족은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책은 각각의 독서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 보르헤스 -